

인천도시공사 ‘꿈의 책방’ 통해 지역 아동들의 꿈 응원



1

1 꿈의 책방 9호점 개소 기념사진 2 개소 기념식에 참석한 이서경호 경영본부장(왼쪽)과 임희진 푸른솔생활학교 지역아동센터장

iH(인천도시공사)는 지난 9월에 ‘꿈의 책방’ 9호점을 인천 서구에 열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지역 아동들의 희망 실현을 돕기 위해서다. ‘꿈의 책방’ 사업은 iH가 ‘아이의 손에 쥐어진 책이 그 아이가 된 미래가 된다’는 믿음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열악한 재정 탓에 노후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에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해주는 대표적인 자체 사회공헌사업이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책방을 조성하고 도서와 교구 등을 지원한다.

iH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1곳씩 ‘꿈의 책방’을 조성해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에는 지난 6월 부평구 함께 걷기 참사랑지역아동센터에 8호점을 연 데 이어 서구 푸른솔생활학교 지역아동센터 9호점까지 2곳의 책방을 조성했다.

푸른솔생활학교 지역아동센터에는 학습공간과 놀이공간이 함께 있어 아이들이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용 시설이 필요했으며, 다문화가족 아이들도 많아 부모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따라 iH는 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외부 기증 도서와 신규 도서, 교구 등을 지원해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학습 및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iH는 앞으로 ‘꿈의 책방’을 추가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기존에 운영

중인 책방의 사후 관리에 노력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승우 iH 사장은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센터 특성에 맞는 독서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책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



iH, 도시의 다음